

## 뒤늦은 축하

한참 들썩이던 어깨가 가까스로 멈췄다. 숨 멎을 듯 끄끙거리던 소리도 겨우 잦아들었다. 눈앞의 왜소한 남자는 떨리는 호흡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를 가만히 지켜보던 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이혼하자던?”

내 물음에 그는 작은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며 우물쭈물하더니 겨우 입을 떼었다.

“후……. 늘 듣던 얘기지 뭐……. 마흔 중반이 넘도록 왜 아직 8급이냐, 자기네 친구들 남편은 죄다 대기업 부장이네, 중소기업 사장이네, 연봉이 어찌네…….”

“에휴…….”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러게 진작 자력 관리 좀 하지’ 라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겨우 삼켰다. 그러잖아도 그의 어깨는 이대로 무너져 버릴 듯 위태해 보였기 때문이다.

“6급 김희만 주무관님!” 그가 혀 꼬부라진 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은근히 계급을 강조하는 듯한 말투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는 듯했다.

“인마, 박철수. 취했구나, 너.”

그의 손에 들린 술잔을 빼기 위해 손을 뻗었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내 손을 쳐낸다. 그리고는 흐리멍덩한 눈빛으로 나를 지그시 노려보았다.

“야. 넌……. 내 동기 주제에 무슨 재주로 그리 승진을 잘하냐?”

“뭐?”

나는 병쩍 얼굴을 한 채 잠시간 아무 말도 못했다.

“곧 승진 시즌인데……. 승진 잘하는 비결 좀 알려 주라. 나도 만년 8급 좀 벗어나게.”

짜증이 밀려왔다. 웬만하면 심한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꼭 매를 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말해 줘? 넌 교육이나 벤치마킹 갈 기회가 있어도 무조건 가기 싫다고 그러지, 자격증도 없지, 학위도 안 따지, 표창 받은 적도 없지, 점수가 나올 구멍이 어디 있냐? 게다가 음주 운전한 적도 있잖아. 넌 일단 자력 관리부터 해

야…….”

“아, 됐어. 됐어. 그만해. 그 정돈 나도 알아, 인마.”

철수는 내 말을 자르곤 신경질적으로 손을 휘저었다. 꿀에 존심은 있어서 잔소리 듣긴 싫은 모양이다. 입이 삐죽 나온 꼬락서니를 보자니 뒷골이 뜨끈해졌다.

“야, 알면 뭐해? 실천을 해야지!”

“아, 할게. 한다고.”

철수는 짜증스런 말투로 대꾸하고는 소주를 들이켰다. 그리고 텅 빈 소주잔을 바라보며 다시 중얼거렸다.

“하……. 어디 쉽게 승진하는 방법 좀 없으려나…….”

정말 답이 없는 놈이다. 나는 불쾌한 마음에 소주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은 뒤 빈정거리는 어조로 말했다.

“미친 놈. 로또 한 장으로 1등 노리는 소리 하네. 그럼 어디 뇌물이라도 짝 돌려 보든가. 혹시 알아? 3급 이상 간부들로 수십 명 돌려 보면 누구 한 명은 심사위원으로 뽑힐지?”

답답한 마음에 툭 내뱉은 농담이었다. 누가 듣더라도 피식 웃고 넘길 그런 농담이었다. 그러나 철수의 입가는 더욱 일그러졌다.

“그래, 뭐……. 세상은 뺨이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지. 더러운 세상. 암만 노력해 봤자 뺨 있고, 돈 바치는 놈은 못 당해.”

기가 찰 노릇이다. 누가 들으면 아주 뼈 빠지게 노력했는데, 억울하게 승진 못한 줄 알겠다. 욕지기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간신히 억눌렀다.

“야, 난 뭐 뇌물 먹이고 승진했냐? 공무원 제안도 열심히 하고, 각종 대외 활동도 참여하고, 여가 시간에도 꾸준히 노력한 것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물이지.”

“그래, 그래. 너 열심히 하긴 했지. 내가 너 인정한다.”

“너한테 인정받자고 한 말이 아니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이야. 너도.”

철수는 아무 말이 없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소주병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부디 내 말이 그저 주제넘은 잔소리가 아닌, 이 친구의 무언가를 바꿀 계기가 되길 바라며 그 침묵을 가만히 존중했다. 몇 초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내리깔던 눈을 치켜뜨며 입을 열었다.

“희만아. 미안한데……. 택시 타게 삼만 원만 빌려주라. 마누라가 용돈을 안 준다.”

먹던 소주를 벨을 뺐했다. 진지한 고심을 하길 기대했던 내가 바보 같았다. 나

는 한숨을 내쉬 뒤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주섬주섬 꺼냈다. 너털너털한 지갑을 들킬까 봐 양손으로 지갑을 감싸 쥐고 조심스럽게 열었다. 파릇파릇한 종이가 열장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중 세 장을 두 손가락으로 집고는 잠시 망설이다, 속으로 ‘에잇’을 외치고는 열 장을 전부 꺼냈다. 철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십만 원? 인마, 너무 많아. 삼만 원만 쥐도 돼.”

“됐어 인마. 나 돈 많아. 이걸로 소주도 사 먹고 그래라. 나중에 승진하면 술이나 쏘고.”

철수의 얼굴색이 밝아졌다. 손사래 치던 두 손이 내 손을 덥석 쥐었다.

“고맙다! 조만간 술 한잔하자!”

가게 문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콧속을 파고들었다. 유독 추운 이번 겨울, 오늘의 한파는 특히 더 매섭다고 했다. 게다가 텅 빈 지갑 덕에 오늘은 걸어서 집에 가야 했다. 추운 날씨 때문인지 오늘따라 더욱 속이 시렸다.

출근하자마자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수군거리는 것이 뭔가 분명 일은 터진 듯한데, 말하긴 꺼려하는 미묘한 상황이었다. 전말은 VP 시간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에, 오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박철수 주무관이……. 감찰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가 끝나 봐야 알겠지만, 승진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세 명의 간부에게 금품을 동반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나와 술잔을 기울이던 처연한 얼굴이 떠올랐다. 세상을 원망하던 일그러진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를 비꼬기 위해 툭 던진 내 실없는 농담이 떠올랐다.

‘설마……. 아냐. 그럴 리 없어. 그 놈이 아무리 바보라지만……. 내가 농담 한마디했다고…….’ ‘설마’라는 단어를 수십 번 중얼거렸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왜 그랬냐고, 정말 나 때문에 그런 거냐고 속으로 몇 번을 질문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장난스레 던진 말도 교사죄가 성립될까? 철수가 조사받으며 내가 부추졌다고 말하면 나도 처벌받게 되는 건가?’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놈이 그렇게 생각 없는 놈은 아니라며 스스로를 위안했다. 그러다 나는 문득 자괴감에 몸서리쳤다. 철수의 일을 듣자마자 그에 대한 걱정보다 내 안위를 가장 먼저 떠올렸음을 깨달았다.

VP 시간이 끝난 후, 사람들은 저마다의 손에 찻잔을 쥐고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그들은 때로는 미간을 찌푸리고 때로는 입꼬리를 올리며 재잘거렸다.

“긋은일 생기면 무조건 하기 싫다 하며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데, 높은 분들이 예뻐하시겠어?”

“일은 못하면서 승진 시즌만 되면 ‘왜 또 떨어졌을까’ 투덜거리는 것도 웃겨.”

“품질분임조 활동에도 혼자 아무 말 없이 묻어가기만 하잖아.”

“자기가 왜 안 되는지 본인만 몰라.”

공기가 냉랭하다. 어디선가 한기가 밀려오는 것만 같았다. 나는 사무실을 터벅 터벅 걸어가다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누구 하나 안타까워할 법도 한데, 들려오는 말들은 모두 차갑기 그지없었다. ‘넌 참 공직 생활 잘못했구나. 어쩜 그리 온통 적만 만들어 놓았냐. 잘 좀 하지, 자식아.’ 그러나 돌이켜보면 나 또한 동기의 회사 생활에 너무 무신경하진 않았나 하는 회한이 들었다. 참견은 좋지 않다는 핑계로, 그가 동료들 사이에서 곱돌고 있는 걸 알았으면서도 나는 그를 방치한 건 아닐까. 담배를 챙겨 들고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원망, 동정, 죄책감 등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내 가슴속을 헤집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붉게 상기된 얼굴과 축 처진 어깨를 한 철수가 돌아왔다. 그의 뒷모습을 먼발치에서 잠시나마 보았으나, 이내 감찰실과 헌병대에 번갈아 호출되느라 정신이 없는 듯했다. 게다가 퇴근 후엔 경찰 조사도 받는다고 들었다. 굳은 표정의 철수가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의 고개가 숙여졌다. 그가 지나가고 나면 그제야 모두의 시선이 그 뒷모습을 쫓았다. 그 누구도 철수를 마주 대하지 않았다. 길가에 떨어진 개똥마냥 피하고, 모르는 행인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회사 내에서의 철수의 처분이 정해졌다. 1계급 강등, 3개월 정직. 그리고 재판을 치르고 나면 벌금과 추징금과 징계 부가금까지 떠안아야 할 것이다.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적어도 천만 원 이상은 짊어져야 한단다.

“제가 봤을 땐 그분 절대 천만 원 없어요. 뇌물 300만 원은 어찌 준비했는지 그것도 신기하구먼.”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도 못 한다던데?”

사람들은 틈만 나면 모여들고는 철수를 헐뜯었다. 다큐멘터리에서 본, 물소의 시체를 물어뜯는 하이에나 무리가 떠올랐다. 저들은 정말 정의감에 불타서 철수

를 비난하는 걸까. 혹시 그저 물어뜯을 먹이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 찻잔을 안고 그들 사이를 지날 때였다. 10년 후임이 지나가는 나를 발견하곤 철수를 흥보다 말고 슬그머니 다가왔다.

“김희만 주무관님, 박철수 주무관님이랑 동기시죠?”

“그런데, 왜?”

“혹시 박철수 주무관님이 김 주무관님께 천만 원 빌려 달라고 할지도 모르니 조심하세요.”

나는 제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는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스멀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후임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발걸음을 돌렸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그의 등 뒤로 다가가 어깨를 붙잡았다. 나도 내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야.”

“네?”

그는 어깨를 붙잡는 손길에 의아한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내 표정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버렸다.

“네가 그렇게 정의감 넘치는 사람이었어? 동료가 비리를 저질렀다니까 아주 그냥 혐오스러워 죽겠냐?”

“왜, 왜 이러세요, 김 주무관님.”

그의 목소리가 떨려 왔다. 다른 이들도 심상찮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험레벌떡 뛰어왔다. 그러나 나는 손을 놓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어깨를 쥐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아니면 철수가 너한테 죽을죄를 지었냐? 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응? 철수가 천만 원이 있든 없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야, 야, 그만해. 뭐 그런 걸로 얼굴 붉히고 그러냐. 그만하자.”

주위 사람들이 내 팔을 잡아당기며 만류하자 나는 그제야 그의 어깨를 놓아 주었다. 그러나 분은 풀리지 않았다. 얼굴이 후끈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후임은 어깨가 아픈지, 다른 손으로 연신 어깨를 주무르며 억울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왜 화를 내세요? 저는 걱정돼서 말한 건데!”

“누가 너보고 그런 걱정하랬어?”

그때였다. “뭐, 뭐야? 왜들 싸우는 거야? 희만아, 무슨 일이야?”

면발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모두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마치 나쁜 짓을 하다 들킨 것처럼 그들은 슬그머니 흠어들었다. 어깨를 붙잡힌 후임도 철수의 얼굴을 힐끔거리며 조용히 자리를 벗어났다. 철수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며칠 전에 같이 술을 마셨을 때에도 어깨가 왜소하다고 느꼈지만, 오늘의 철수는 살짝만 건드려도 부서질 듯 연약해 보였다. 철수는 뭐가 그리도 두려운지 연신 주변을 힐끔거리었다. 사무실 안의 사람들은 철수를 바라보다가도 눈이 마주칠 때면 얼른 고개를 숙였다. 그럴 때마다 철수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다. 떨리는 목소리가 사무실 안을 울렸다.

“저……, 모두들 저 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신 것 같네요.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제게 내려진 벌은 달게 받고 반성하겠습니다.”

철수의 말이 끝나자 정적이 찾아왔다. 그 누구도 철수에게 위로나 격려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철수는 아랫입술을 질근 깨물고는 머리를 굽적였다. 그때 철수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버리고 말았다. 나를 보던 철수의 표정이 기묘하게 뒤틀렸다. 주춤거리며 내게 다가온 철수는 내 팔을 살짝 잡아끌더니 사무실 구석으로 데려갔다.

“못난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그때의 술자리 이후에 처음으로 마주한 철수의 목소리였다.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미안하지…….”

“네가 나한테 왜 미안해?”

그 와중에도 철수는 피식 웃었다. 그때의 내 농담은 이놈의 행동과는 정말 상관이 없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자 나도 모르게 조금 안도했다.

“술자리에서 내가 한 말 말야. 내가 괜한 말을 했다 싶어서.”

직설적으로 털어놓았다. 철수의 입으로 다시 한번 확인받고 싶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나의 농담은 철수의 부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철수의 입만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다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다.

“내 잘못이지 뭐. 네가 그런 말 했다고 해서 흔들려서는 안 됐는데. 아, 그래도 감찰실에 네 얘긴 하지 않았어. 걱정 마.”

“흔들……렸다고?”

나는 마른침을 삼켰다. 애써 차분한 척을 해 보았지만 얼굴은 이미 뜨거워졌다. ‘전부 너 때문이다, 너는 공범이다.’ 나를 보는 철수의 눈빛은 그렇게 말

하는 듯했다. 그럼에도 내 잘못을 덮어 줬으니 고마워하라고 말하는 듯했다. 철수는 그런 내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잠시 우물대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다.

“우리 지원이가 말야……, 유치원에서 친구와 싸웠대. 한 친구가 자기네 아빠가 6급 공무원인데 지원이더러 너네 아빠는 몇 급이냐고 묻더라. 그랬더니 지원이가……, 우리 아빠도 6급이라고 그랬대.”

철수는 감정이 격해지는지 잠시 천장을 바라보고 숨을 고른 후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너네 아빠 8급인 거 아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대. 그래서 개랑 싸웠다더라고. 마누라가 울면서 그 얘길 하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 진짜 목숨을 팔아서라도 승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때, 뇌물을 바쳐 보라는 네 말이 떠올랐지.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머리가 뜨거워지고 손가락 끝이 바르르 떨렸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원흉이 바로 나라고 말하는 듯이 들렸다. 불쾌감이 스멀스멀 피어 올랐다. 어리석은 농담을 꺼낸 나 자신을 향한 것인지, 자신의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는 철수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몰랐다. 철수는 숙인 고개를 슬며시 들며 내 눈을 바라보았다.

“희만아……,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천만 원, 아니 천만이라도.”

아, 그렇구나. 이게 이놈의 결론이구나. 나는 맥이 쪽 빠져 버렸다. 등줄기에 수백 마리의 벌레가 기어가듯 소름이 돋아났다. 내 가슴속에서 차오르던 뜨거운 것의 이름이 배신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책임이 있으니까 대신 돈을 달라는 거지?”

나는 이를 악물며 억눌린 소리를 내었다. 철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아냐, 뭘 그렇게 생각하냐. 그냥 돈 좀 빌려 달라는 거잖아…….”

“너 지금까지 나한테 돈 빌려 가서 갚은 적 한 번도 없잖아. 어차피 네가 이천만 원 빌려 가서 빨리 갚을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돈을 달라는 거 아냐?”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나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한 걸음 다가오더니 낮게 으르렁거렸다.

“야. 친구끼리 푼돈 몇 번 빌린 것 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냐?”

“푼돈이든 아니든, 빌린다는 건 갚으라는 뜻인 거 몰라? 그리고 너 지금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나보고 돈을 내놓으라는 거잖아. 너 그런 뜻으로 나한테 얘기 꺼낸 거 아냐?”

“야! 그래! 막말로 네 잘못도 있는데, 돈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철수가 드디어 본성을 드러냈다.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 나머지 오히려 헛웃음이 새어 나왔다. 짐작은 했지만, 철수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눈이 뒤집어지는 느낌이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인마, 농담한 게 잘못이냐? 농담을 농담으로 듣지 않고 죄를 저지른 네 잘못이지! 너 솔직히 말해 봐. 내 말 듣고 뇌물 바쳤다는 것도 뺨이지? 원래부터 뇌물 바치려고 마음먹은 거 아냐?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니냐고!”

“이 자식이!”

철수의 손이 치켜 올라갔다. 나는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잠시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런 충격도 전해지지 않았다. 슬며시 고개를 드니 철수는 팔을 내리곤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축 처진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됐다……. 내가 미안하다.”

철수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힘이 쭉 빠진 듯 초췌한 얼굴이 나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한 걸음씩 내게서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

“야…….”

말이 나오다 말았다. 손도 앞으로 뻗다가 말았다. 마치 그의 등과 나 사이에 놓은 단단한 벽에 가로막힌 것만 같았다. 그가 사무실 문을 벗어나자 그제야 손을 쭉 뻗어 보았지만, 내 손은 빈 허공만 휘저을 뿐이었다.

“아까 제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 했을 때는 그리 화내시더니, 정작 김 주무관님이 훨씬 독하시네요. 그럴 거면 저한테 왜 그리 화내셨대요?”

멀리서 후임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자 얼굴이 뜨거워졌다. 정말 내가 철수에게 왜 그랬는지, 어찌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아니면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걸까. 해답은 찾을 수 없었다. 그저 철수의 처진 뒷모습만 자꾸 눈에 밟혔다. 쫓아가서 철수를 잡았어야 했다. 그리고 사과했어야 했다. 나의 이 머뭇거림이 가져올 비극을 이때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꽃들이 액자를 가득 뒤덮고 있었다. 검은 틀의 액자 가운데에 철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동안 볼 수 없었던 해맑은 웃음. 비록 언젠가 사진관에서 억지로 웃어 본 사진이었겠지만, 정말로 드문 웃음이었다. 그 웃음은 마치 하늘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웃을 수 있게 되었다고, 삶이 그만큼 힘들었다고 말하는 듯했다. 철수의 사진을 바라보자 비로소 실감이 났다. 입으로만 전해들은 사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그제야 현실이 되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내뱉은 가시 돋친 말들이 수없이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보여 준 얼굴이 일그러진 얼굴이라니, 마지막으로 드러낸 감정이 분노라니……. 그 모든 게 견딜 수가 없었다. 내가 뱉어 낸 말을 듣고 힘겹게 등을 돌리던 그 뒷모습이 내 머릿속에 도장처럼 각인되어 끝없이 재생됐다.

환하게 웃고 있는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듯했다. 반달처럼 휘어진 눈이 원망을 담은 채 나를 보는 듯했다.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밉겠지……. 미안하다, 철수야……. 내가 너한테 그래선 안 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널 욕해도 나는 그래선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철수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벼랑 끝에 선 철수의 등을 떠민 건 나였다. 가슴속에 가득 쌓인 돌덩이가 너무나 무겁다. 그 압력 탓인지 눈물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조문객들과 맞절을 하는 철수의 아내가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그마한 아이가 치맛자락에 찰싹 붙어 있었다. 저 조그마한 아이는 아빠의 죽음을 이해하고 있을까.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다 나는 흠칫 몸을 떨었다. 아빠와 닮은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엄마의 옷깃을 부여잡은 두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 저 어린 것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이란 것을. 자살이라는 말의 뜻을. 자신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저버리고 떠났음을.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다. 더 이상 이곳에 있어선 안 될 것만 같았다. 위장이 쥐어 짜이는 느낌과 함께 구토가 밀려와 나는 입을 틀어막은 채 그대로 뛰쳐나갔다.

며칠간 술에 찌들어 살았다. 그리고 요 며칠간은 철수네 집 근처를 배회하곤 했다. 퇴근하자마자 철수네 아파트 단지에 가서 한 시간 정도 서성이는 게 습관처럼 굳어졌다. 철수를 닮은 그 조그마한 아이의 눈빛이 잊히지가 않았다.

철수의 어린 아들은 오늘도 놀이터의 조그마한 벤치에 앉아 있었다. 무슨 생각

에 잠겨 있는지, 하늘을 바라보는 동그란 눈동자는 축축이 젖어 있었다. 오른손에는 알록달록한 크레파스가 쥐어져 있었고, 무릎 위에는 작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나는 놀이터 외곽의 나무 그늘에 서서 그 모습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담배를 한 대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리고 다시 벤치를 바라보는데, 어느새 지원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아저씨, 우리 아빠 친구죠?”

갑자기 혹 들어온 질문에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등 뒤를 돌아보자 지원이가 스케치북을 꼭 쥐 채로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장례식장에서 나를 봤니?”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내 말에 지원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 얼굴이 제일 슬퍼 보였거든요. 우리 아빠의 제일 친한 친구니까 제일 슬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일곱 살의 어린 시선이 나를 어루만졌다. 철수를 닮은 그 눈빛이, 친한 친구라는 그 말이 철수를 대신해 나를 용서하고 인정해 주는 것만 같았다. 두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눈물도 닦지 않은 채 아이의 불을 쓰다듬었다.

“그래……. 아빠의 친한 친구란다. 제일 친한 친구지. 그리고 나쁜 친구란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을 들어 내 손등 위에 덮으며 싱긋 웃었다. 그렇게 몇 초간 따뜻한 온기를 전해 주던 아이는 문득 뭔가를 떠올렸는지 손에 들린 스케치북을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다.

“아저씨한테 부탁이 있어요.”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부탁이라니?”

“아빠한테 제가 그린 그림을 보여 주고 싶은데, 엄마가 아빠 잠든 곳에 데려가 주질 않아요. 어딘지 알려 주지도 않아요. 아저씨는 알죠?”

아이는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그 속엔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큰 사람은 ‘상장’ 이라고 적힌 흰 종이를 들고 활짝 웃고 있었고, 작은 사람은 ‘아빠 승진 축하해요.’ 라고 적힌 말풍선을 매달고 있었다. 겨우 가라앉힌 눈시울이 또다시 붉어졌다.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지만, 목

소리는 절로 떨리고 있었다.

“와, 참 잘 그렸구나. 아빠가 좋아하시겠다.”

“아저씨가 이걸 우리 아빠한테 전해 주세요. 부탁이에요.”

아이의 작은 손이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래, 그렇게. 내가 책임지고 아빠한테 전해 주마.”

“아, 맞다. 잠깐만요.”

아이는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손뺌을 쳤다. 그러고는 벤치 위에 놓여 있던 녹색 크레파스를 쥐어 들더니, 그림 맨 밑에다 무어라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크레파스는 삐뚤삐뚤한 선들을 스케치북에 마구 새겨 놓았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알아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아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그림과 글씨가 뿌옇게 흐려졌다. 나는 눈가를 훔치고는 스케치북을 받아들였다.

“그래. 아저씨가 전해 줄게. 아빠도 아주 좋아하실 거야.”

나는 곧장 철수의 납골당으로 향했다. 나는 지원이의 스케치북을 들고 철수의 앞에 섰다. 환하게 웃는 철수의 얼굴을 오늘은 마주할 수 있었다. 여전히 미안한 감정이 터져 나왔지만, 오른손에 들린 선물을 핑계 삼아 애써 덮고 있었다.

“잘 지냈냐? 거긴 편하냐? 그렇게 도망가니까 속이 시원하냐?”

철수는 여전히 활짝 웃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 나쁜 짓을 하고 나니 회사에서는 완전 유명 취급하고, 너희 집사람은 더 바가지 굶었겠지. 하나뿐인 친구라는 놈은 외면하고 빛은 많고……. 많이 힘들 만도 했다. 그래도 인마, 그렇게 도망치는 건 좀 아니야. 네가 잘못된 거야.”

나는 작은 유리창을 열어 철수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철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래, 네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우유부단하고 미루기 좋아하는 놈인데, 좀 게으르지만, 겁도 많은 놈이었는데, 네가 오죽 절박했으면 뇌물을 돌렸겠냐. 내가 그렇게 널 이해했어야 했는데……. 이제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 넌 이미 가고 없는데.”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점차 떨려 왔다.

“그리고 또 오죽했으면……, 겁도 많은 놈이 그런 무서운 선택을 했겠냐

.....”

철수의 얼굴이 흐려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목이 따가워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나는 말 대신 조용히 손에 들린 스케치북의 표지를 넘겼다. 지원이가 그린 예쁜 그림이 모습을 드러냈다. 철수의 사진이 담긴 액자 옆에 지원이의 그림을 올려놓았다. 지원이가 써 놓은 ‘아빠 승진 축하해요.’ 라는 글자가 철수의 얼굴 옆에 자리 잡았다.

“축하한다, 인마. 넌 이미 지원이에게는 7급이야. 아니, 6급이다. 승진 축하한다. 짜식아!”

나는 바닥에 쓰러졌다. 무릎이 아픈 것도, 눈물 콧물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미안하다……. 철수야, 미안하다! 널 이해하고 다독여 주고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 진작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줘야 했는데……, 미안하다! 힘든 너한테 질책하고 몰아붙여서 미안하다! 부디 나를 용서해 다오, 철수야!”

용서해 달라는 마지막 말이 남몰당 안에 메아리쳤다. 철수의 사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원이의 그림 속 철수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액자에 비친 전등 불빛이 철수의 눈가에서 곱게 반짝이고 있었다.